

양돈협회 캠페인

해양배출 감축, 양돈농가 먼저 준비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소식

☒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본격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지난해 대한양돈협회 이천 지부(지부장 정종극)가 처음 추진했던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양돈협회는 이천지부의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사례를 적극 도입, 자연순환농업 농가들에게 가축분뇨 액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향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따른 분뇨액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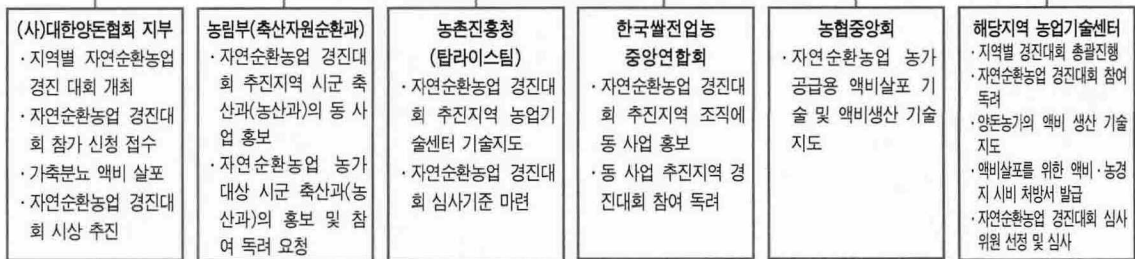
양돈협회는 이와 관련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에 참여키로 한 이천·여주·예산·경주·영광지부 5개 지부 및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농촌진흥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관계자들과 지난 1월 23일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는 이천지부 전례를 모범으로 삼아 추진되며, 우선 해당 지부에서

2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연순환농업 경종농가의 신청을 받은 후 참여 농가에 액비를 살포하기로 했다. 이후 양돈협회 관계자와 지역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과·농정과 관계자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3차례 이상에 걸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시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연순환농업 농가에 대한 시상금은 지부에서 직접 자부담으로 마련하는 등 농가 스스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5개 지부장들은 농가 스스로 분뇨 자원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현재 액비저장탱크 및 살포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농림부 하옥원 사무관은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특히 홍보 예산은 최대한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농촌진흥청 박홍재 친환경기술과 담당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시군센터에 대한 교육 지원을 살피기로 했다.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사업계획



사업총괄 : (사)대한양돈협회

☒ 축분뇨 해양투기 10%이상 감축

-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량 '큰 폭 추가 감축' 방침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욱)은 지난해 폐기물 해양투기량 112만^m을 감축한데 이어 올해에도 100만^m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 총 허용량을 지난해 대비 11.1% 감축한 800만^m으로 제한하고, 해양투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분뇨, 하수오니 등 폐기물을 중점 관리하여 각 10% 이상씩 감축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은 총 8백81만2천^m로 전년대비 11.2%가 감소했다. 이는 당초 감축목표인 9.3%를 1.9%p 초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 하수오니, 폐수오니 등 전체 폐기량의 83%를 차지하는 4개품목의 경우 감축실적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축분뇨의 경우 지난해 해양투기량이 2백60만7천^m로 전년대비 5.0%가 감소했으며 폐수오니는 6.2%가 줄었다. 특히 음식물 폐수와 하수오니는 오히려 해양투기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해양투기 가축분뇨 전량에 대해 이물질 제거토록 하되 이물질 혼입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등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맞춤형 액비공급' 이 관건

영광지부는 현재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으로 100% 가축분뇨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석 영광지부장은 "경종농가가 필요한 때에 액비를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액비를 필요로 하는 경종단지의 규모에 맞는 맞춤형 액비저장조 설치를 통해 경종농가가 원하는 때 액비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이 성공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영광지부 가축분뇨 자원화의 큰 특징은 ▲전문가로 이뤄진 액비유통센터 유통팀을 통해 액비살포를 하고 있다는 점 ▲지역 경종농가와 단지별로 활발한 액비공급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지역신문 광고 및 현수막 등을 통해 꾸준히 자원화를 홍보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 파주연천축협, 지역 15개단체와 사업 협약식

전국 최초로 지역축협과 단위농협이 자연순환농업협약식을 체결, 전국적으로 자연순환농업을 확산시킨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이 지난 2월 5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관련단체와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파주연천축협과 파주시청, 파주관내 9개 지역농협, 농협파주시지부, 약산위탁영농조합법인, 파주장단공작목반연합영농조합법인, 양돈협회 파주지부 등 15개 단체가 참여해 상호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농축산인의 소득향상과 자연생활 환경을 보존하는 자연순환농업추진기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달중 차관보는 "자연순환농업은

양돈협회 캠페인

양돈농가 생존전략 '가축분뇨 자원화'

농축협의 의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니라 농축협과 생산자 단체, 행정의 하나가 되어 상생을 해야만 가능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이날 "액비살포 후 과학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농진청에는 과학적 검증 연구를 주문하고 축산자원순환과에는 살포 후 우수사레발굴과 홍보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협약식을 마치고 김차관보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참관인들은 파주축협이 운영하는 액비저장탱크와 돼지 2천5백두규모의 탄현면 연다산리 수향농장(대표 채정우)을 방문, 시설 점검과 함께 액비살포 시 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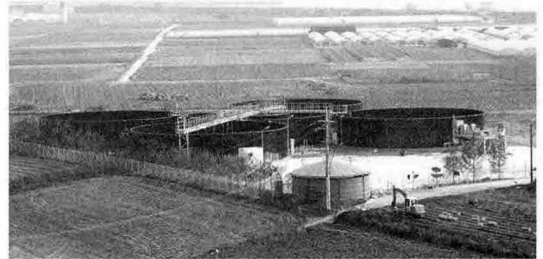
☒ "분뇨 자원화 위해 충분한 액비저장탱크 설치 시급"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액비살포기 비수기에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액비저장탱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월 23일 대한양돈협회가 개최한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추진회의에서 참석 농가들은 액비저장탱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분뇨 자원화의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종극 이천지부장은 "매일 10톤의 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는 부속기간 6개월(180일) 동안 1,800톤 정도의 분뇨를 배출하게 되어 현재의 액비저장탱크 200톤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어도 500톤~1,000톤 규모의 액비저장탱크가 2~3개는 비치되어야 하므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만용 경주지부장 또한 "충분한 액비저장탱크 보급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아울러 "액비살포를 위한 대형 살포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돈협 여주지부, 1만톤 규모 액비저장조 건립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대한양돈협회 여주지부(지부장 이용복)가 대규모 액비저장조를 건립하여 액비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양돈협회 여주지부는 최근 1만톤 규모의 대용량 액비저장조를 완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연간 3만톤 이상의 액비자원화가 가능하게 됐다.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은 "이번에 완공된 액비저장조를 통해 여주지역 액비 활성화를 위한 양돈농가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액비를 살포할 수 없는 시기에 액비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 여주지역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돈장 악취 저감 기술 - 환경관리공단 무상 지원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악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한해 악취물질측정 및 분석, 개선대책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지원을 원하는 양돈농가는 환경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양돈장 악취물질 측정·분석 및 방지시설 개선방안 제시,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등으로 무상으로 지원된다. ■ 문의 : 032)560-2496 양돈